

# 이해와 존중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되어

## 홀리 엔젤스 한인 성당, 필라델피아 대교구 ‘다민족 미사’에 참여



다민족미사를 집전한 찰스 제이 차퍼트 대주교와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복사단원 7명이 기념촬영했다.

**【필라델피아】** “하느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주제로 올해 17 번째 맞이하는 ‘다민족 미사’가 성대히 열렸다. 지난 29일 10시, 필라델피아 중심가의 150여 년의 역사로 안고 가톨릭 신자들의 버팀목이 돼 왔던 성 베드로와 바오로 대성당 (Cathedral Basilica of Saints

Peter and Paul)에서 필라델피아 대교구 찰스 제이 차퍼트 대주교 (Archbishop Charles J Chaput) 와 각국 약 60여 명의 사제들이 함께 공동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이른 새벽부터 비바람이 계속 쏟아져 몹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6개국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민 와 정착한 약 2,000여 명의 신자들이 훌을 가득 메운 가운데 축제와 같은 기쁨속에 각 나라별로 독특한 고유 의상을 입고 춤과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입장할 때마다 호감 어린 시선이 모아졌다.

다민족 미사는 1975년 유럽 계통의 백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든 민족들이 화합하여 각 공동체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돋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각 나라가 미사의 한 부분을 맡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매우 아름답고 독특한 연례행사다.

필라델피아 홀리엔젤스 한인성당(주임 이효언 펠릭스 신부)에서는 7명의 복사가 참여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시작 성가로 필리핀 공동체가 부른 ‘모여서 기억하라’는 파이프 오르간의 선율에 따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있을 때 사제단과 대주교가 입장했다. 이날 찰스 제이 차퍼트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여러 인

종이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가? 문화를 사랑하는가?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물었다.

다민족 2세들은 급변하는 문화와 종교적인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회두를 던지며 이질적인 문명에 휩쓸려 하느님을 외면하고 희생적인 사랑에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요즘 세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아픈 과정이 있어야만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향숙 짹마는 “7년째 복사로 봉사하고 있는 아들 김명준 안드레아가 처음으로 다민족 미사에 봉사하게 되었다”며 “하느님은 온 세계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경숙 미쉘 명예기자